

勤勞者家口와 自營業者家口の 稅負擔分布*

裴 竣 皓** · 洪 忠 基***

논 문 초 록 :

본고는 통계청이 조사한 도시가계조사(1994) 기초자료와 대우경제연구소가 조사한 대우패널(1994/95)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의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세부담 수준과 분포에 격차가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가구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직접세 부담이 자영업자가구의 그것보다 평균적으로 3배 정도 높고 고소득층에 있어서는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1987년도 도시가계조사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양 가구의 세부담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현진권·나성린(1994)이 제시하는 26%의 평균적인 격차에 비해 세부담 격차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의 특징은 조사되지 않는 변수인 자영업자의 소득규모를 추정함에 있어 자영업자가구와 근로자가구의 소비의 소득탄력치가 다를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양 가구에 상이한 소비함수를 적용한 점이다.

I. 문제의 제기

근로자가구에 비해 자영업자가구의 세부담이 낮다고 지적된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낮은지에 대해서는 주장이 분분하다. 실증분석의 사례가 많지 않고 일부 행해진 실증분석도 조금씩 다른 결과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진권·나성린(1994)은 1987년도 도시가계조사 기초자료를 가공해 근로자가구의 소득세 부담율이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세 부담률보다 약 26% 더 높고, 고소득층에서는 그 격차가 약 300% 까지 확대된다고 주장한다.¹⁾ 이같은 이들의

* 한국재정학회 1997년도 춘계 학술발표대회 참가자와 본지 심사위원의 논평에 감사한다.

남은 오류는 필자들의 책임이다.

**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1) 현진권·나성린(1994) 〈표 3-1〉과 〈표 3-3〉, 〈표 3-5〉와 〈표 3-6〉 참조, pp. 111-114.
고소득층은 제9분위가 283%, 제10분위가 313% 정도 더 높은 소득세 부담률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는 직감적으로 우리들이 느끼는 양 가구간의 세부담 격차를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검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다.

검토되어야 할 측면으로 첫째, 자영업자가구(이하 자영업자라고도 칭함)의 소득을 추계함에 있어 근로자 가구(이하 근로자라고도 칭함) 소비의 소득탄력치가 자영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소비의 소득탄력치가 일치하는 경우는 예외적이기 때문이다.²⁾ 둘째, 고소득층의 대부분을 자영업자로 구분하는 점이다.³⁾ 이는 상위 20%(10%) 계층의 82%(93%)가 자영업자이고, 하위 50%(30%) 계층의 90%(95%)가 근로자라는 설정이다. 이로부터 얻어지는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이 근로자 평균소득의 3.3배라는 추정결과는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이 근로자 평균소득보다 약간 높다는 그간의 상식과 크게 벗어난다.⁴⁾

본고의 목적은 실제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수준과 분포를 비교·분석하여 양 가구간에 격차가 존재함을 보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1994)와 대우경제연구소의 대우패널(1994/95)을 이용한다.

기존 연구인 현진권·나성린과 다른 점은 첫째, 자영업자의 소득규모 추정에 있어 도시가계조사 외에 대우패널을 동시에 사용하여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소비의 소득탄력치 일치' 가정을 완화시키고, 둘째 모집단화 작업을 통해 고소득

2) 대우패널(1994/95)을 이용하여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소비함수를 추정한 결과 소비의 소득탄력성은 근로자가구 0.461, 자영업자가구 0.382로 얻어져, 근로자가구가 더 크다. 추정식은 현진권·나성린과 동일함. <표 7>, <표 8>의 모형 4 참조. 근로자가구의 소비의 소득탄력치가 자영업자가구의 소비의 소득탄력치보다 큰 것은 라이프사이클 모형이 암시해주는 바와 일치한다. 즉, 직업의 안정도가 떨어지고 퇴직금·연금 등 제도적 측면의 보호막이 약한 자영업자가 노후를 대비해 근로기에 보다 높은 저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이다.

3) 국세통계연보는 납세자의 경우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이 근로자보다 2-3배 높고, 1인당 평균 납세액도 3-4배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납세자인 일부 자영업자는 근로자보다 월등히 높은 소득을 벌고 있고,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실효세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과세자 비율은 30%대로 근로자의 50%대보다 훨씬 낮다. 따라서 면세자를 포함한 전체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은 근로자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문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물론 세무통계는 자영업자의 낮은 과표현실화율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은 보고된 수치보다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시가계조사, 대우패널 등의 서베이조사 자료는 자영업자의 소비지출이 근로자 소비지출의 2-3배 수준이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4) 이 밖에 세부담을 계산과정에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액을 추계하고 있는데, 그 추계과정이 명확하지 않고, 근로자 소비함수의 추정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총을 자영업자화하지 않고 실제 조사된 관측치만을 이용하며, 셋째 소득세 등 세부담액 계산에 있어 추계치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 조사된 세부담액을 사용하고, 넷째 분석대상 세부담에 소득세, 부가가치세 외에 가계가 부담하는 기타 직접세, 기타소비세,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시키며, 다섯째 자영업자 소득의 추정 에 이용되는 근로자 소비함수의 추정식에 로그함수를 채용하지 않고, 관측된 자가, 전세, 월세의 주거형태를 월세평가액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추정된 소비함수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이다.⁵⁾

이하 제2절에서는 도시가구를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로 이분하여, 소득세(재산세 등 가계대상의 직접세를 포함), 부가가치세, 소비세, 사회보장부담금의 부담수준과 소득계층별 부담분포를 분석하여 이를 기존의 연구와 비교, 검토하며, 제3절에서 분석에서 얻어지는 정책함의를 기술하고 남은 과제를 정리한다.

II.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세부담 수준과 분포

1. 이용 자료

(1) 도시가계조사

우리의 분석에 이용하는 자료는 통계청이 매월 조사하여 공표하는 도시가계 조사의 기초자료로 조사기간은 199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이 자료는 총 6만 4,065개의 관측치로 구성되어 있다.⁶⁾ 이 중에서 우리는 연중 4회 이상 조사된 관측치 4,932개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이를 연간자료로 환산하여 사용한다.

분석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변수의 분포를 확인하여 정상적인 관측치와

5) 인구특성과 소득특성을 기준으로 한 모집단화 작업이 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모집단화에 따른 가중작업으로 최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이 조사 대상에 추가되고 중간층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정작업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의 격차는 우리의 분석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가구는 물론 고소득층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얻어진다. 한편 자영업자의 소득세(기타 직접세 포함) 부담률은 우리의 분석에서는 비례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들의 분석에서는 누진적으로 나타난다. 물론 두 분석은 모집단화 작업의 여부로 차별화되어 있으므로 직접적인 비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6) 이들 관측치의 월별 분포 및 빈도수별 분포는 필자에게 연락하면 얻을 수 있다.

아주 다른 소비·소득의 값을 보여 특이치라고 판단되는 관측치를 제거하였다. 가령 월세거주자로 월세평가액이 월 500만 원 이상(1개)이거나, 소득이 월 450만 원 이상(1개)인 관측치 2개, 전세거주자로 월소비지출이 350만 원 이상(3개)이거나, 소득이 월 450만 원 이상(4개)인 관측치 9개를 제거하여 4,923개의 관측치가 남는다. 이들은 근로자가구 2,891, 자영업자가구 2,032로 구성된다.

다음은 월세평가액을 토대로 주거패턴 곧 자가, 전세, 월세의 구분을 재조정한다. 이는 전세·월세거주자 중 경제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를 자가거주자에 포함시켜 주거변수의 특성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⁷⁾ 즉 2,891개의 근로자가구의 경우 월세평가액을 기준으로 전세거주자가구 중 월세평가액 기준 제8분위, 제9분위, 제10분위를 자가거주자로 분류하고, 월세거주자가구 중 월세평가액 기준 제10분위를 자가거주자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우리의 분석에서 자가거주자는 1,689(당초 1,312)가구, 전세거주자는 760(당초 1,087)가구, 월세거주자는 442(당초 492)가구로 조정되었다.

우리의 분석에 사용한 근로자가구는 2,891가구로 주거구분은 위와 같으며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구분하면 40세 미만이 1,774가구, 40세 이상이 1,117가구이다.

한편 자영업자가구는 2,032가구인데 이 중 법인경영자, 무직, 기타(총 630가구)를 제외한 자영업자, 개인경영자, 자유업자는 1,402가구이다. 이들을 가구주 연령에 따라 구분하면 40세 미만이 733가구, 40세 이상이 669가구이다.

위의 기준에 의거해 최종적으로 남은 관측치를 소득계층별로 정리하면 〈부표 1〉과 같다. 여기서는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를 혼합하여 소득계층을 구분하고 있다. 즉 통상의 경우 근로자가구 내의 소득계층을 10개 분위로 구분하여 논의하거나 자영업자가구 내의 소득계층을 10개 분위로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비해 〈부표 1〉에서는 혼합하여 10개 분위별 분포를 구하고 있

7) 대한주택공사가 서울·성남·대구지역 임대주택 거주자 1,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상가구 중 177가구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었다. 즉 전세·월세 거주자 중 15%가 자가보유자인 셈이다. 자가를 보유하면서 전세, 월세로 거주하는 이유는 직장과의 거리, 전세를 안고 매입, 자녀교육, 협소한 집 등의 순이었다. 동아일보, 1996년 10월 29일. 이 같은 현실에 추가하여 전세·월세거주자 중 월세평가액으로 미루어 자가거주자에 버금가는 경제력을 지닌 가구를 주거구분과정에서 자가거주자로 간주하였다. 이 같은 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주거더미는 유의하지 않다.

다.

먼저 〈부표 1〉에 제시되어 있는 대우패널의 소득계층별 분포를 보자. 근로자 가구의 경우 최고소득계층이 적은 반면 자영업자가구의 경우 최고소득계층이 많다.

다음은 〈부표 1〉에 제시되어 있는 도시가계조사의 소득계층별 분포를 보자. 유의할 점은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이 본고에서 추계된 소득이라는 점이다. 근로자가구에서 최고소득계층이 적고 자영업자가구에서 최고소득계층이 많은 점은 대우패널과 동일하다. 또 근로자 가구는 최저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작고 자영업자가구는 최저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자영업자가구는 중간계층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대우패널에 비해 도시가계조사 자료가 분포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 대우패널

대우패널은 대우경제연구소가 조사·공표하는 자료로 조사기간은 1994년 7월부터 1995년 6월까지의 1년이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가구를 포함하므로 도시가계조사와 다소 상이하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대부분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는 가구와 개인파일을 함께 이용하는데 시초관측치는 7,493개이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없거나 무응답일 경우를 제외하면 4,634의 관측치가 남는다.

다음은 가구와 개인파일을 가구파일로 통합하는 작업이다. 개인과 관련된 변수를 그들이 속한 가구의 고유번호에 따라 같은 가구별로 합산한다. 이 작업의 결과 4,634개의 관측치는 1,931개의 관측치로 통합된다.

여기서 소비합수 추정에 필요한 변수인 소득, 주거형태, 월세평가액, 소비지출 등에 관한 데이터가 없는 관측치를 제거하고 1,871개의 관측치를 얻는다. 또 관측치 중 특이치라고 구분할 수 있는 일부 표본을 제거한다. 즉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비성향이 15를 초과하는 것 2개,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서 소비성향이 3을 초과하는 것 5개, 소비성향이 0.2 미만이면서 소비가 80만 원 미만인 24개의 관측치 등 총 31개를 제거하였다. 이 결과 1,840개의 관측치가 남고 이들의 구성은 근로자가구 1,108가구, 자영업자가구 732가구이다.

이어서 주거형태가 특이치라고 판정되는 관측치를 제거한다. 먼저 근로자의 경우 자가거주자는 월세평가액이 600만 원 초과이고 소득이 400만 원 미만, 월세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이고 소득이 750만 원 초과인 표본 4개, 전세거주자는 월세평가액이 80만 원 초과이고 소득이 150만 원 미만, 월세평가액이 50만 원 미만이고 소득이 450만 원 초과인 관측치 5개, 월세거주자는 월세평가액이 100만 원 초과이고 소득이 200만 원 미만, 월세평가액이 800만 원 초과이고 소득이 300만 원 미만, 월세평가액이 300만 원 미만이고 소득이 800만 원 초과인 관측치 4개를 제거하였다.

한편 자영업자의 경우 자가거주자는 월세평가액이 600만 원 초과이고 소득이 400만원 미만, 월세평가액이 150만 원 미만이고 소득이 750만 원 초과하는 관측치 8개, 전세거주자는 월세평가액이 80만 원 초과이고 소득이 350만 원 미만, 월세평가액이 50만 원 미만이고 소득이 550만 원을 초과하는 관측치 4개, 월세거주자는 월세평가액이 100만 원 초과이고 소득이 200만 원 미만, 월세평가액이 400만 원 초과이고 소득이 300만 원 미만, 월세평가액이 300만 원 미만이고 소득이 400만 원 초과인 관측치 5개를 제거하였다. 이에 따라 30개의 관측치가 제거되고 남은 관측치는 1,810개이며 이들은 근로자가구 1,095가구, 자영업자가구 715가주로 구성된다.

이 표본을 대상으로 월세평가액과 소득을 기준으로 주거형태에 따른 구분을 재조정한다. 즉 전세거주가구 중 월세평가액 기준 제8분위, 제9분위, 제10분위를 자가거주자로 분류하고, 월세거주가구 중 월세평가액 기준 제10분위를 자가거주자로 분류하였다.

2. 분석방법

(1) 도시가계조사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추정

도시가계조사의 자영업자가구 소득을 추정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도시가계조사의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식 (1)의 소비함수를 추정한다. 추정식은 〈표 6〉의 주에 제시되어 있는 다른 네 개의 추정식과 비교·검토한 결과 가장 설명력이 높은 식으로 판명되어 선택되었다. 이어서 대우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를 대상으로 식 (1)의 소비함수를 추정한다. 대우패널의 경우 자영업자의 조사된 소득이 도시가계조사

자영업자의 조사된 소득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고 인정되므로,⁸⁾ 이를 사용해 소비함수를 추정한다.

도시가계조사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을 추정하는 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기술해보자. 먼저 도시가계조사 근로자가구의 소비함수 추정시 표본을 전가구로 하는 경우와 가구주연령 40세를 기준으로 40세 미만과 40세 이상의 두 그룹으로 나누는⁹⁾ 두 경우를 추정하였다. 추정한 근로자가구 소비함수의 월소득변수의 추정계수로부터 한계소비성향 c_1^w 을 얻는다. 이어서 대우패널의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에도 동일한 작업을 적용하여 소비함수를 추정하고 월소득변수의 추정계수인 한계소비성향 c_2^w , c_2^s 를 구한다. 여기서 우리는 도시가계조사 자영업자가구의 한계소비성향 c_1^s 를 $c_1^w \times c_2^s / c_2^w$ 로 가정한다. 즉 대우패널에서 제시된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의 차이가 도시가계조사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가정이 필요한 것은 도시가계조사가 자영업자소득을 공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월소득변수의 추정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의 추정치는 근로자가구의 소비함수 추정치를 그대로 이용한다.

또 표본을 40세 미만과 40세 이상의 두 그룹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가구의 소비함수를 추정해 이 함수의 월소득변수의 추정치에도 동일한 작업을 적용하여 자영업자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을 구해 낼 수 있다. 우리의 분석에서는 40세를 기준으로 구분한 소비함수를 기본모형으로 사용하고 전체가구에 대한 소비함수를 감응도 분석차원의 보조모형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른 연구와의 비교 및 식 (1)에 의한 추정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식 (2)의

- 8) 1994년도 도시가계조사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과 소비가 모두 조사된 관측치는 일부에 불과하다. 일련의 데이터 조정작업을 거쳐 최종 선택된 1,402관측치 중 38%인 529관측치만이 소득과 소비통계를 갖추고 있다. 또 조사된 관측치도 통계상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즉 월세평가액을 포함한 소득평균이 83만 6,000원인데, 월세평가액을 제외한 소득평균이 123만 3,000원으로 나타나 상식에 어긋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소비지출은 월세평가액 포함시 120만 3,000원, 미포함시 94만 6,000원으로 나타나 상식에 부합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 관측치별 평균소비성향의 평균이 2.7로 나타나 비상식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된 통계치의 신뢰도가 아주 낮다는 증거이다. 이에 비해 대우패널은 자영업자의 소득이 소비지출보다 높게 나타나 조사결과에 일정 수준의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다.
- 9) 40세를 구분연령으로 사용한 것은 이 연령이 자녀의 교육비지출 등 가계비지출 내용이 크게 차이나는 연령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40세 구분은 35세, 45세, 50세 구분시에 비해 그룹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 주었다. 또 전가구 사용할 때에 비해 두 그룹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구원의 연령별 구성이 가구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차별화하여 보여 주는 장점을 지닌다(<표 6>, <표 7>의 모형 1 참조).

소비함수를 추정해 보았으나 우리는 식 (1)의 소비함수를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유는 식 (2)의 로그함수의 경우 추정치의 신뢰도가 전체적으로 높지 않을 뿐아니라 소득탄력치인 $C_1 \sim C_3$ 와 가구원수의 추정계수치에 따라 추정결과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낮추기 때문이다.

$$C = a_1 + a_2 D_2 + a_3 D_3 + b_1 N_1 + b_2 N_2 + b_3 N_3 + b_4 N_4 + b_5 N_5 + b_6 N_6 + c_1 Y + c_2 D_2 Y + c_3 D_3 Y \quad (1)$$

C 는 월 소비지출, D_2 는 전세더미, D_3 는 월세더미, N 은 가구원수로 N_1 은 5세 이하, N_2 는 6세~13세 이하, N_3 는 14~19세 이하, N_4 는 20세~29세 이하, N_5 는 30세~59세 이하, N_6 는 60세 이상, Y 는 월 총소득(세 포함)¹⁰⁾을 지칭한다.

$$\ln C = a_1 + a_2 D_2 + a_3 D_3 + b_1 N_1 + b_2 N_2 + b_3 N_3 + b_4 N_4 + b_5 N_5 + b_6 N_6 + c_1 \ln Y + c_2 D_2 \ln Y + c_3 D_3 \ln Y \quad (2)$$

우리의 분석이 현진권·나성린과 다른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자의 소득규모 추정시 도시가계조사 외에 대우패널을 동시에 사용하여 이들의 연구가 채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소비의 소득탄력치 일치’ 가정을 완화시키고 있다. 즉 대우패널을 이용하여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비함수를 추정하고 여기서 얻어진 양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의 비율이 도시가계조사의 근로자와 자영업자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을 추계하고 있다.

둘째, 실제 조사된 자료만을 이용할 뿐 최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을 가중작업을 통해 조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이들은 가구원수와 소득을 기준으로 약 590만 가구의 모집단을 고려하여 최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을 추가하는 가중작업을 시도한다. 그 결과 고소득층의 대부분을 자영업자가, 저소득층의 대부분을

10) 총소득 대신에 세금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한 가처분소득을 변수로 사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추정된 소비함수식 전체의 설명력이 낮아지고 소득변수의 유의도도 약간 낮아진다.

근로자가 점하고 있다.

셋째, 소득세 등 세부담액 계산시 추계치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 조사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넷째, 분석대상 세부담에 소득세, 부가가치세 외에 가계가 부담하는 기타 직접세, 기타소비세,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시키고 있다.

다섯째, 자영업자소득의 추정에 이용하는 근로자 소비함수의 추정식에 로그함수를 채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구의 소비함수 추정식을 응용하여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을 추정하는 분석방법상 로그함수의 추정계수인 탄력치에 따라 소득의 추정치가 큰 폭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또 관측치를 가구주연령을 기준으로 40세 미만인 가구와 40세 이상인 가구로 나누어 소비함수를 추정한다.

여섯째, 자가, 전세, 월세의 주거형태 더미변수를 고려하기에 앞서 관측치를 월세평가액을 기준으로 전세·월세거주자 중 일부를 자가거주자로 조정한다. 이는 전세·월세거주자중 일정수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주거형태와 소득 및 소비의 상호관계를 높여주기 위함이다.

일곱째, 가구원수 변수를 연령에 따라 6등분하여 라이프사이클별로 상이한 소비지출을 반영시키고 있다. 자가, 전세, 월세의 주거더미는 연령별 가구원수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연령별 가구원수 변수와 주거형태의 상호 연관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여덟째, 우리는 소비함수의 추정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들은 근로자 소비함수의 추정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세부담액 추정

여기서 우리는 세부담이라고 할 때 크게 보아 소득세 등 직접세와 소비세에 의한 세부담을 지칭하고, 사회보장부담금을 가산하여 광의의 세부담으로 사용하고 있다. 직접세의 경우 본고에서는 '소득세 등'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을 포함한다. 양도소득세와 같이 금액이 크고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조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등을 포함한다. 사회보장부담금은 근로자가구에서 공적연금 보험료(개인연금 제외)와 의료보험료의 합계치를 나타내고, 자영업자가구에서는 대부분 의료보험료를 지칭한다.

이상의 정의는 이용자료인 도시가계조사와 대우패널에 따라 약간 상이하다.

소득세의 경우 도시가계조사에서는 소득세, 재산세, 기타 직접세를 지칭하고, 대우패널에서는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을 포함한다. 도시가계조사는 소득세만을 구분하여 조사하지 않고 소득세 외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기타 직접세까지를 포함한 세부담액을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附加稅인 주민세는 이를 소득세에 포함시켜 ‘광의의 소득세’로 구분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 소득세 외 직접세의 세부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가구의 세부담을 도시가계조사보다 좀더 세분하여 조사·공표하고 있는 대우패널(1994/95)의 세부담 자료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광의의 소득세가 가계의 직접세 세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별로 구분하면 근로자가 60%, 자영업자가 47%로 근로자가 더 높다.¹¹⁾ 주목할 점은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세 부담비율이 낮지 않다는 점이다. 즉 소득세를 납부하는 자영업자가구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의 세부담액보다 종합소득세 세부담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본고에서 ‘소득세 등’으로 직접세 부담수준을 나타낼 때 그 주종인 소득세 부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소비세 부담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가계소비지출에 적용되는 평균적인 세율을 이용해 각 가구의 부가가치세 및 전체 소비세 세부담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명재(1996)에서 제시된 소비세 부담률을 이용한다. 이 자료는 1994년도 도시가계조사의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를 혼합한 전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계층을 10분위로 구분한 다음 각 계층별 소비지출액에 대한 세부담률을 제시하고 있다.

11) 세부담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 대우패널의 1,704 표본(근로자가구 1,038 자영업자가구 666)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세(근로소득세 + 종합소득세)가 전체 직접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가구 54.7%(변동계수 0.645), 근로자가구 59.6%(0.565), 자영업자가구 47.0%(0.773)로 나타나고 있다. 또 40세를 기준으로 구분할 경우 근로자가구 40세 미만 61.4%(0.553), 40세 이상 57.1%(0.579), 자영업자가구 40세 미만 47.7%(0.755), 40세 이상 46.5%(0.787)의 값을 보여 근로자가구가 자영업자가구보다 높고, 40세 미만의 가구가 40세 이상의 가구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다. 가구단위이므로 근로자가구(자영업자가구)에서도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가구가 있으나 그 규모는 12.6%(14.9%)로 크지 않다.

3. 분석 결과

① 소득세 등 직접세(이하 ‘소득세 등’이라고 칭한다) 면세자를 포함할 경우 도시 자영업자가구(이하 자영업자)는 도시 근로자가구(이하 근로자)에 비해 평균 소득은 23%(32%¹²⁾) 더 많지만 소비지출은 8%가 더 많아 평균소비 성향이 낮다. 소득세 납세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면 자영업자는 근로자에 비해 평균소득은 26%(35%¹³)가 더 많고 소비지출은 10%가 더 많을 뿐이다(〈부표 3〉 참조).

② 소득세 등의 납세자 비율은 도시기계조사의 경우 88.6%이고 이 중 근로자 91.2%, 자영업자 83.2%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이 때 소득세 등에는 소득세 외에 재산세, 자동차세 등 기타 직접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높은 납세자 비율이 곧바로 순수 소득세 납세자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편 대우패널에서는 납세자 비율이 80.9%로 근로자 86.9%, 자영업자 72.3%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기계조사의 표본에서 소득세 등의 납세자비율이 대우패널보다 높고 양쪽 데이터에서 모두 근로자가 자영업자에 비해 납세자 비율이 높다(배준호(1996) p. 35 〈표 II-3〉 참조).

③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평균 세부담률은 9.2%와 5.6%로 근로자가 64% 정도 더 높다. 이 때의 조세에는 소득세 등, 소비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사회보장부담금이 포함되며 각각의 부담률은 소득세 등이 3.0%와 0.9%, 소비세가 4.0%와 3.8%, 사회보장부담금이 2.2%와 1.0%이다. 소득세 등의 부담률의 경우 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평균적으로 230% 더 높은 세부담을 하여 현진권·나성린(1994)의 26%와 대우패널의 50%¹⁴⁾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나고 고소득층에서는 400% 더 높은 세부담을 보이고 있다. 소득으로 가중하지 않을 경우 이 부담률은 8.5%와 6.2%로 근로자가 37% 정도 더 높을 뿐이다. 이로부터 고소득계층의 세부담률이 근로자에서 높고 자영업자에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 〈표 1〉, 배준호(1996) p. 35 〈표 II-3〉 참조).

12) 소비함수의 추정식으로 40세를 기준으로 한 연령별 구분에 따른 소비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전체 가구의 소비함수를 이용할 경우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220만 4,000원으로 추정된다. 32%는 이 값을 이용한 경우이다.

13) 주 12)와 같이 전체 가구의 소비함수를 이용할 경우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은 232만 8,000원으로 추정된다.

14)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구당 평균 세부담은 1.8%와 1.2%로 나타나고 있다.(〈표 1〉 참조)

④ 근로자의 소득계층별 세부담 분포는 〈그림 2〉에 보듯이 제1분위가 6.8%, 제10분위가 11.7%로 나타나면서 누진적인 부담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반면 자영업자의 세부담 분포는 〈그림 2〉에 보듯이 제1분위가 11.2%, 제10분위가 5.3%를 보여 역진적인 부담분포를 나타낸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 제1분위를 제외하면 약간 역진적이거나 비례적인 분포에 가까운 부담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자의 이같은 부담분포는 사회보장부담금(주로 의료보험 보험료)과 소비세의 역진적인 귀착에 기인한다(〈표 2〉, 〈표 3〉 참조).

⑤ 근로자가 자영업자의 세부담 분포를 좀 더 상세히 들여다 보면 소득세 등에서는 근로자가 자영업자에 비해 누진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이 포함된 전체세부담에서는 양 가구 간의 부담분포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전체 세부담분포로 보면 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약간 누진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그림 3〉, 〈그림 4〉 참조).

⑥ 1987년도 자료를 이용한 현진권·나성린과 비교하면 자영업자의 세부담률이 더 낮게 나타난다.¹⁵⁾ 이 같은 결과는 자영업자의 과표현실화율이 지난 7년 사이에 낮아졌거나 방위세 폐지, 소득세율 인하 등 그간의 세제개편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⑦ 이상의 분석결과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와 대우경제연구소의 대우패널이라는 두 서베이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석시 일정한 주의가 필요하다. 즉 서베이자료는 최저소득과 최고소득층에 대한 적절한 표본추출이 힘들어 이들 계층에 대한 자료의 대표성이 낮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가령 자영업자 계층에서 최저소득층에 대한 표본추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비과세그룹이 좀더 많이 포함되면¹⁶⁾ 본고의 분석결과보다 세부담이 낮아질 것이고 자영업자의 세

15) 현진권·나성린은 자영업자 소득을 높게 추계하는 한편 세부담도 추계의 결과 근로자보다 높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영업자 소득을 그들보다 훨씬 작게 추계하고 세부담은 근로자보다 낮게 파악하고 있다. 우리는 자영업자 소득을 추계치에 의존하고 세부담은 조사치를 사용하였다.

16) 우리가 사용한 자료 중 대우패널 표본의 경우 자영업자 그룹이 중상류계층을 상대적으로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가령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이 조사 대상 표본의 65%에 달하고 있는데,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이 비율이 납세대상자의 39%(1995)에 불과하다. 또 표본 중 43%가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69%가 재산세를 납부하며 6%가 연금각출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근로자가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사대상가구의 83%가 갑근세를 납부하는데, 이는 근로자가구 중 50% 전후가 납세자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꽤 높은 수치이다. 참고로 보면 근로자가구에서는 47%가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61%가 재산세를 납부하며 66%가 연금각출금을 납부하고 있다.

부담 역진도는 한층 낮아질 것이다.

⑧ 본고에서 대우패널의 주된 용도는 도사가계조사의 자영업자 소득을 추계하기 위한 소비함수 추정에 있다. 그러나 대우패널에서도 세부담률을 산출해 낼 수 있다. 대우패널에서 보면 소득세 등의 면세자 포함시 자영업자는 근로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소득이 14.9% 더 많고 소비지출이 15.3% 더 많다. 양 가구의 세부담률은 소득세 등이 1.8%와 1.2%, 소비세가 3.5%와 3.7%, 사회보장부담금이 2.1%와 0.7%로 나타나 전체 세부담률은 7.4%와 5.5%로서 자영업자가 35% 정도 더 높은 세부담을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⑨ 대우패널(이하 대우)에서 얻은 값을 도사가계조사(이하 도시)에서 얻은 값과 비교해 보자(〈표 1〉-〈표 5〉 참조).

첫째, 대우가 도시에 비해 또 자영업자가 근로자에 비해 평균소득과 평균 소비지출이 높다. 대우의 근로자 평균소득은 도시에 비해 18.5% 높고, 대우의 자영업자 평균소득은 도시에 비해 10.5% 높다. 또 대우의 근로자 평균소비지출은 도시에 비해 4.8% 높고, 대우의 자영업자 평균소비지출은 도시에 비해 12.0% 더 높다. 이 때 도시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은 추계치이다.

둘째, 세부담률의 경우 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높게 나타나는 점은 공통이지만 양 가구 간의 세부담율의 차이는 도시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도시의 경우 양 가구 간의 세부담률 차이가 64%이지만 대우는 35%에 머물고 있다.

셋째, 세부담률의 경우 자영업자는 양 자료에서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근로자는 도시가 대우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도시의 소득세 등의 부담률(3.0%)이 대우의 소득세 등의 부담률(1.8%)보다 높기 때문이다.

넷째, 소득계층별 세부담률을 보면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등의 부담률이 도시에서 누진적인 부담분포를 보이는 반면 대우에서 약한 역진적인 부담분포를 보인다.¹⁷⁾ ‘소득세 등 + 사회보장부담금 + 소비세’의 부담률은 도시에서 누진적이

17) 이상의 결과로부터 도사가계조사와 대우패널의 표본대표성이 다르며 따라서 표본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모집단화작업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일리있는 지적이다. 그런데 모집단화 작업은 우리의 연구와 다른 별도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즉 우리 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계층별 소득분포 및 납세실적에 관한 정확하고 광범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는 정보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관련 제반 정보를 종합하여 전체(도시) 가구의 계층별 소득분포와 납세액 분포를 추계하는 작업은 우리의 연구와 일선울긁는 독립된 연구라는 것이다. 또 이 같은 연구를 통해 얻은 추계자료와 도사가계조사 및 대우패널 자료를 비교하여 두 기초자료의 표본대표성을 밝히는 작업과 여러 가지 가정하의 매칭작업을 거쳐 두 자료를 소득과 납세액의 두 변수에 주목하여 모집단화시키는 작업도

지만 대우에서는 역진적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세 등의 부담률이 도시에서 비례적인 부담분포를 보이지만 대우에서는 약한 역진적인 부담분포를 보인다. '소득세 등 + 사회보장부담금 + 소비세'의 부담률은 도시와 대우 모두 역진적이다. 또 이 같은 연구를 통해 얻은 추계자료와 도시가계조사 및 대우패널 자료를 비교하여 두 기초자료의 표본대표성을 밝히는 작업과 여러 가지 가정하의 매칭 작업을 거쳐 두 자료를 소득과 납세액의 두 변수에 주목하여 모집단화시키는 작업도 별도의 후속연구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⑧의 경우 소득으로 가중한 값을 기준으로 한 경우이며 소득으로 가중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률은 소득세 등이 1.8%와 1.2%, 소비세가 3.7%와 4.1%, 사회보장부담금이 2.3%와 0.9%, 그리고 이들의 합계가 7.8%와 6.2%로 소득가중시에 비해 세부담률이 양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근로자 고소득계층의 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점에서 근로자 고소득계층의 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가계조사와 대조된다. 도시가계조사에서는 소득으로 가중하면 근로자의 세부담률은 올라가고 자영업자의 세부담률은 낮아진다(〈표 1〉, 배준호(1996) p. 39 〈표 II-8〉 참조).

⑩ 이상의 분석결과가 현진권·나성린의 분석결과와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여기서 선행연구인 이들의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두 가지 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첫째, 자영업자 소득의 과대 추계가가능성이다. 자영업자 소득추계식이 로그함수 형태이므로 소득탄력치와 가구원수 탄력치의 추정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소득추계치가 크게 바뀌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이용자료가 횡단면자료이므로 추정된 로그형태 소비함수의 설명력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각종 통계치를 취합하여 추정한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과대하게 파악되고 있는 점이다. 1987년을 포함해 최근까지 가구당평균 소득세 납부액은 자영업자보다 근로자가 더 높는데 이들의 분석결과는 이와 반대되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즉 자영업자의 소득세 납부액은 근로자의 그것에 비해 면세자 포함시 1.75배이고 납세자만의 경우 1.66배이다. 이는 근로자의 면세자 비율이 자영업

별도의 후속연구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의 불확실한 정보하에 모집단화 작업을 시도하면 모집단화 작업상의 오차가 추가되므로 모집단화하지 않은 연구에 비해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자의 면세자 비율보다 높음을 암시한다. 그런데 이는 과세자비율이 근로자 50% 전후, 자영업자 30% 전후라는 기존의 상식에 비추어도 들어맞지 않는다.

⑪ 도시가계조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정한 (1)의 소비함수식이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이는 소득변수와 소비지출변수에 로그를 취하지 않고 최소자승법(OLS)에 의해 추정한 값이다. 추정결과를 보면 가구원수 변수의 유의도가 높는데 40세 미만에서는 60세 이상 변수의 유의도가 낮고, 40세 이상에서는 5세 이하 변수의 유의도가 낮아 추정결과가 합리적이다. 또 중고등학교 학생이 포함되는 14~19세 연령 그룹의 가구원 1인당 소비지출액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에서 제1위이고 40세 미만에서도 제1위이며, 40세 이상에서는 제2위이다. 월소득의 추정계수가 나타내는 한계소비성향은 40세 이상이 40세 미만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⑫ 대우패널을 이용한 소비함수 추정식은 근로자가 <표 7>, 자영업자가 <표 8>에 정리되어 있다. 근로자에서는 일부 가구원수 변수만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주거유형더미도 유의하지 않다. 유의한 변수는 월소득변수로 한계소비성향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도 유사한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⑬ 대우패널에서 추정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비함수는 월소득변수의 추정계수인 한계소비성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자영업자 한계소비성향/근로자한계소비성향’의 값은 전체 가구가 $0.207/0.252(=0.821)$, 40세 미만이 $0.216/0.238(=0.908)$, 40세 이상이 $0.211/0.247(=0.854)$ 로 제시되고 있다.

III. 결 론

본고에서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두 가지 미시자료를 이용한 실태분석을 통해 자영업자가구의 세부담이 근로자가구에 비해 낮다는 그 간의 상식을 수치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 이를 기존연구의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우리의 연구에서 세부담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실제 조사 자료를 사용한 우리의 연구에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추가하는 가중작업을 거친 가공자료를 사용한 현진권·나성린(1994)보다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세를 포함한 직접세 부담의 격차가 더 크게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우리가 분석한 소득세 등의 세부담은 소득세외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기타 직접세까지를 포함한 세부담이다. 이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가 소득

세 부담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약점을 벗어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대우패널을 이용하여 가계가 부담하는 직접세 부담액 중 소득세 부담액 비율을 찾아내 이를 도시가계조사의 직접세 부담액에 응용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대우패널의 경우 전가구 기준으로 직접세 부담액의 55%(근로자가구 60%, 자영업자가구 47%)가 소득세 부담액으로 파악되고 있다(상세한 내용은 주 11) 참조). 가령 대우패널에서 얻은 비율이 도시가계조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도시가계조사의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소득대비 소득세 부담률을 구하면 1.8%와 0.4%가 되어 소득세 등 직접세 부담률의 3.0%와 0.9%에 비해 상대적인 격차가 더 커진다.¹⁸⁾

정리하면 우리 나라 도시의 근로자 가구는 자영업자 가구에 비해 직접세 부담률이 3배 이상인데 소득세 부담률은 더욱 차이가 벌어져 4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담률의 절대수준이 낮게 나오는 것은 면세자가구를 포함시킨 것이 한 가지 원인이지만, 도시가계조사에서 소득세 등 직접세 세부담액이 충실하게 조사되고 있지 않는 것도 다른 한 가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세 등 직접세 부담액과 부담률의 추정과 양자 간의 격차를 파악하려는 1차적인 시도의 성격을 지닌다.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도시가계조사보다 소득과 세부담액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고 최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을 조사대상 가구에 제대로 포함시킨 자료를 만들어 이를 토대로 분석작업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현진권·나성린과 우리의 작업을 비교하는 작업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용자료는 도시가계조사로 같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료의 연도가 다르고 분석방법이 모집단화 작업의 유무로 차별되기 때문이다. 특히 분석방법상의 차이가 결과에 미친 영향은 작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연구가 모두 표본수가 비교적 많은 도시가계조사에 기초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얻어진 결과를 놓고 다음과 같은 추론을 시도하는 것도 흥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양 연구의 분석자료의 가공과 분석방법에 커다란 무리가 없고 얻어진 결과에

18) 소득계층별로 소득세가 소득세 등 직접세에서 점하는 비중이 다를 수 있으며 이 점을 고려하면 이 값이 약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즉 소득계층별로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의 세부담 구성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결과는 이 같은 우려와 달리 소득세 부담률이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보여 준다.

일정한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전제할 경우 첫째, 도시가계조사의 표본선정 시 1987년에 비해 1994년의 조사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자영업자가 더 많이 선정되어 자영업자가구의 세부담률을 낮추었을 가능성이다. 둘째, 표본선정에 문제가 없다면 1987년과 1994년의 7년 사이에 자영업자의 세부담 수준이 실제로 낮아졌을 가능성이다. 이는 기간중 자영업자의 소득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포착률이 낮아져 세부담이 낮아졌거나 소득세 등의 세제개편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크게 낮아졌을 가능성을 지칭한다. 사실 1980년대 후반이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세무당국도 일손이 부족하여 엄격한 실무집행이 한층 어려워졌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같은 현실이 감안되어 1995년 이후 소득세 납부방식이 정부부와 결정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이행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끝으로 본고의 발전과 관련하여 장래의 과제로 두 가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타당성 있는 모집단화 작업의 개발과 이를 이용한 세부담액과 세부담 분포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즉 현재의 도시가계조사보다 표본의 대표성이 높은 조사대상 가구를 선정하여 가구의 소득과 세부담액을 정확히 기록하는 조사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모집단화 작업을 통해 가공한 다음 얻어 낸 세부담액과 부담률을 본고 및 현진권·나성린과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본고의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King(1983)과 橘木・跡田(1984)에서 제시된 바의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간의 상반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이는 소득계층별로 소득세 등 직접세 부과, 사회보장부담금 추가, 또 소비세 추가시 당초소득과 이들 과세 혹은 재분배 후의 소득의 불공평성이 동일하게 되는 점을 수직적 공평성을 나타내는 지표축과 수평적 공평성을 나타내는 지표축에 그려 이들 과세 혹은 재분배정책의 시행 전후의 후생의 고저를 판별하는 작업이다.

〈표 1〉 도시가계조사 (대우패널) 가구의 세부담률

(단위: 만 원, %)

	근로자가구		자영업자가구	
	평 균	부담률	평 균	부담률
1. 소득	166.7(197.6)	—	205.6(227.1)	—
2. 소비	108.6(113.8)	—	117.1(131.2)	—
3. 소득세 등	4.9(4.4)	3.0(1.8)	1.9(3.8)	0.9(1.2)
4. 사회보장부담금	3.7(4.1)	2.2(2.1)	1.9(1.6)	1.0(0.7)
5. 부가가치세	3.8(4.0)	2.8(2.0)	4.2(4.6)	2.1(2.1)
6. 소비세	6.7(6.9)	4.0(3.5)	7.6(8.2)	3.8(3.7)
7. 소득세 등 + 사회보장부담금	8.6(7.6)	5.2(3.9)	3.8(4.2)	1.9(1.9)
8. 소득세 등 + 사회보장부담금 + 부가가치세	12.4(11.6)	7.4(5.9)	8.0(8.8)	3.9(3.9)
9. 소득세 등 + 사회보장부담금 + 소비세	15.3(14.5)	9.2(7.4)	11.4(12.4)	5.6(5.5)

주: 괄호 안은 대우패널 가구임. 모든 값은 소득세 등 면세자를 포함한 값이며 소득으로 가중된 값임. 부담률은 대소득비율.

자료: 필자 계산

〈표 2〉 도시가계조사 근로자가구의 소득계층별 세부담

(단위: %)

소득 계층	소득세 등		소득세 등 + 사회보장부담금		소득세 등 + 사회보장부담금 +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 사회보장부담금 + 소비세	
	부담분포	부 담 률	부담분포	부 담 률	부담분포	부 담 률	부담분포	부 담 률
1	0.8: 0.7	0.6: 0.6	1.8: 1.5	2.2: 2.2	2.8: 2.4	5.1: 5.1	3.0: 2.6	6.8: 6.8
2	2.4: 2.4	1.2: 1.1	3.5: 3.7	3.1: 3.0	4.4: 4.7	5.7: 5.5	4.6: 4.9	7.2: 7.1
3	3.1: 3.8	1.3: 1.4	4.4: 5.3	3.3: 3.5	5.2: 6.2	5.7: 5.9	5.4: 6.4	7.2: 7.4
4	3.6: 4.4	1.4: 1.5	5.1: 6.0	3.5: 3.6	6.0: 6.8	5.8: 5.8	6.1: 6.9	7.3: 7.3
5	5.5: 5.9	1.9: 1.9	6.5: 7.1	4.0: 3.8	7.2: 7.8	6.3: 6.1	7.3: 8.0	7.8: 7.7
6	7.1: 8.7	2.2: 2.5	7.8: 9.3	4.2: 4.6	8.2: 9.6	6.4: 6.8	8.3: 9.6	8.0: 8.4
7	10.4:12.8	2.8: 3.1	10.6:12.5	5.1: 5.3	10.6:12.2	7.3: 7.5	10.6:12.2	9.0: 9.2
8	13.2:16.6	3.2: 3.6	12.6:15.5	5.3: 5.9	12.3:14.7	7.4: 8.1	12.2:14.4	9.1: 9.8
9	20.6:22.2	4.3: 4.7	18.7:19.5	6.7: 7.2	17.3:17.8	9.0: 9.4	16.9:17.4	10.8:11.3
10	33.5:22.5	5.0: 4.8	28.9:19.6	7.5: 7.3	26.0:17.7	9.7: 9.5	25.5:17.6	11.7:11.6
합계	100	2.4	100	4.5	100	6.8	100	8.5

주: 소득세 등 면세자 포함. 각 항목의 좌측은 통상의 10분위 계층, 우측은 〈부표 1〉에 의한 10분위 계층.

자료: 필자 계산

〈표 3〉 도시가계조사 자영업자가구의 소득계층별 세부담

(단위: %)

소득 계층	소득세 등				소득세 등 + 사회보장부담금				소득세 등 + 사회보장 부담금 +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 사회보장 부담금 + 소비세			
	부담분포		부 담 륜		부담분포		부 담 륜		부담분포		부 담 륜		부담분포		부 담 륜	
1	1.8	2.4	1.1	1.0	3.9	4.9	4.3	3.9	4.0	5.1	8.7	7.9	3.7	4.7	11.2	10.3
2	3.6	3.0	0.7	0.7	5.5	4.5	2.3	2.3	5.5	4.5	4.8	4.8	5.0	4.1	6.3	6.3
3	4.9	3.3	0.8	0.8	6.3	4.6	2.1	2.2	6.3	4.4	4.3	4.5	5.9	4.1	5.8	6.0
4	8.0	5.0	1.1	0.9	8.3	5.5	2.3	2.0	7.7	5.4	4.5	4.3	7.1	5.1	5.9	5.7
5	6.8	6.9	0.8	1.1	7.8	7.2	1.8	2.2	7.9	6.7	3.9	4.3	7.7	6.3	5.4	5.8
6	8.4	6.1	0.8	0.8	9.0	6.9	1.8	1.7	9.0	7.1	3.8	3.8	8.8	7.0	5.4	5.3
7	9.6	7.5	0.8	0.8	9.9	8.0	1.7	1.8	10.0	7.8	3.7	3.8	9.9	7.7	5.2	5.4
8	13.0	9.2	0.9	0.8	12.1	9.5	1.8	1.7	12.0	9.6	3.7	3.7	12.0	9.5	5.4	5.2
9	17.1	16.1	1.0	0.9	15.5	15.1	1.8	1.8	15.3	14.9	3.8	3.8	15.9	15.0	5.6	5.4
10	26.7	40.5	1.0	1.0	21.7	33.8	1.6	1.7	22.4	34.4	3.5	3.6	23.9	36.5	5.3	5.5
합계	100		0.9		100		2.1		100		4.5		100		6.2	

주: 〈표 2〉의 주 참조.

자료: 필자 계산

〈표 4〉 대우패널 근로자가구의 소득계층별 세부담

(단위: %)

소득 계층	소득세 등				소득세 등 + 사회보장부담금				소득세 등 + 사회보장 부담금 +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 사회보장 부담금 + 소비세			
	부담분포		부 담 륜		부담분포		부 담 륜		부담분포		부 담 륜		부담분포		부 담 륜	
1	5.3	5.2	2.4	2.4	6.3	6.0	5.9	5.8	6.4	6.1	9.2	9.1	6.1	5.8	11.1	11.0
2	5.1	5.3	1.6	1.6	6.3	6.6	4.1	4.2	6.8	7.1	6.8	6.9	6.7	7.1	8.5	8.6
3	7.0	10.5	1.8	2.0	7.9	12.1	4.4	4.7	8.0	11.8	6.8	7.1	7.8	11.3	8.3	8.6
4	8.0	6.3	2.0	1.7	9.3	7.5	4.7	4.2	9.0	7.6	7.0	6.4	8.6	7.3	8.4	7.9
5	7.8	9.6	1.7	1.6	8.8	10.4	4.0	3.8	8.8	10.7	6.1	5.9	8.7	10.6	7.5	7.3
6	8.5	8.7	1.7	1.8	8.7	8.3	3.5	3.7	8.9	8.4	5.5	5.7	9.0	8.4	7.0	7.1
7	11.4	14.3	1.9	2.0	11.2	14.3	4.1	4.2	11.0	13.9	6.1	6.2	11.0	13.9	7.7	7.8
8	12.8	12.9	1.8	1.7	11.9	11.8	3.9	3.5	11.9	11.8	5.8	5.4	12.0	11.9	7.4	6.8
9	13.5	12.3	1.7	1.9	13.0	10.6	3.5	3.5	12.8	10.2	5.3	5.2	12.9	10.3	6.7	6.5
10	20.6	14.8	1.7	1.4	16.6	12.4	3.2	3.0	16.5	12.5	4.8	4.6	17.3	13.3	6.3	6.1
합계	100		1.8		100		4.1		100		6.3		100		7.9	

주: 〈표 2〉의 주 참조.

자료: 필자 계산

〈표 5〉 대우패널 자영업자가구의 소득계층별 세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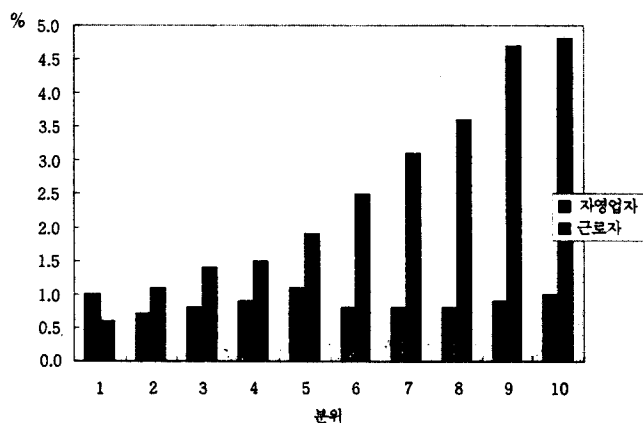
(단위: %)

소득 계층	소득세 등				소득세 등 + 사회보장부담금				소득세 등 + 사회보장 부담금 +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 사회보장 부담금 + 소비세			
	부담분포		부담률		부담분포		부담률		부담분포		부담률		부담분포		부담률	
1	5.5	5.9	1.5	1.6	5.4	5.6	3.2	3.2	5.7	6.0	7.6	7.5	5.4	5.6	10.1	9.9
2	6.1	5.7	1.2	1.2	6.0	5.8	2.3	2.3	6.8	6.6	5.6	5.6	6.6	6.4	7.6	7.6
3	6.5	2.3	1.3	1.2	8.2	3.3	2.4	2.5	8.1	3.2	4.9	5.1	7.7	3.0	6.6	6.7
4	6.8	8.3	1.2	1.4	8.3	10.6	2.2	2.4	8.3	10.2	4.6	5.0	8.0	9.6	6.3	6.6
5	9.4	4.5	1.1	0.8	8.2	4.4	1.8	1.5	9.0	5.3	4.1	3.9	9.1	5.4	5.8	5.6
6	7.2	10.7	1.0	1.1	8.5	9.8	1.7	1.7	9.2	10.9	3.9	4.1	9.4	11.0	5.6	5.8
7	10.9	6.4	1.1	1.0	10.6	7.3	1.8	1.9	10.6	7.3	3.8	4.0	10.6	7.3	5.3	5.7
8	14.8	11.7	1.5	1.2	13.9	11.6	2.0	1.9	12.7	11.1	3.9	3.8	12.6	11.0	5.4	5.3
9	12.9	19.2	1.0	1.2	12.8	18.1	1.6	1.8	12.9	17.6	3.4	3.6	13.5	22.9	4.9	5.2
10	19.9	25.3	1.1	1.1	18.2	23.6	1.5	1.6	16.5	21.9	2.9	3.1	17.1		4.3	4.5
합계	100		1.2		100		2.1		100		4.5		100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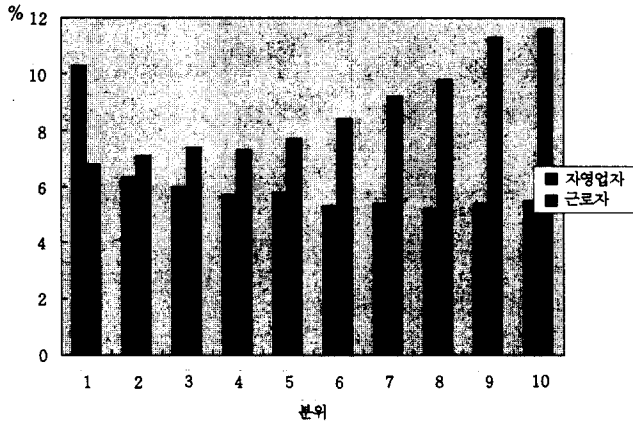
주: 〈표 2〉의 주 참조.

자료: 필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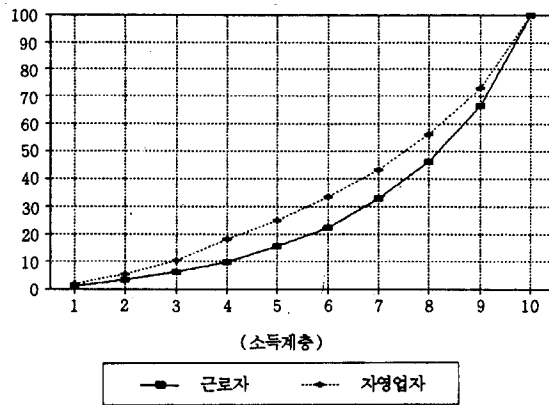
〈그림 1〉 도시가구의 소득계층별 직접세 부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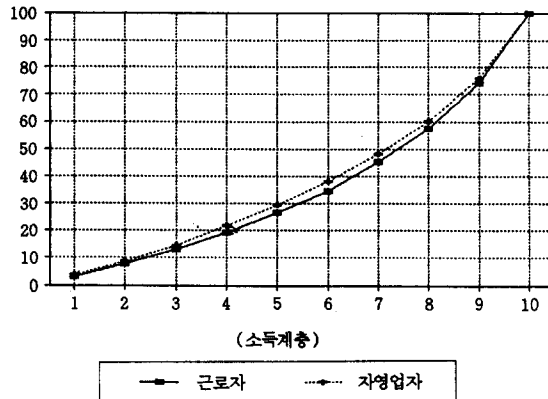
〈그림 2〉 도시가구의 소득계층별 전체 세 부담 비교



〈그림 3〉 근로자·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세 부담 누적분포



〈그림 4〉 근로자·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세 부담 누적분포
(소득세 등 + 소비세 + 사회보장부담금)



〈표 6〉 도시가계조사 근로자가구 소비함수 추정치(199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전체	가구주(40세 미만)	가구주(40세 이상)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절편	97,894 (3.0)**	113,682 (2.6)**	35,090 (0.5)	85,6264(2.7)**	50,806 (1.5)	2,696 (11.3)**	-2,909 (-0.1)
전세더미	12,494 (0.3)	17,483 (0.3)	11,108 (0.0)	9,901 (0.2)	136,681 (2.1)*	1,121 (2.4)*	249,527 (2.9)**
월세더미	1,304 (0.0)	72,627 (1.2)	-77,140 (-0.8)	10,533 (0.2)	53,356 (0.7)	1,934 (3.6)**	-13,946 (-0.1)
가구원수(구분)							
5세 이하	30,648 (2.9)**	31,363 (2.6)**	-300 (-0.0)				
6~13세	40,366 (3.7)**	46,436 (3.3)**	36,944 (2.0)*				
14~19세	79,768 (6.9)**	58,464 (2.6)**	89,652 (5.5)**				
20~29세	43,103 (4.1)**	30,386 (2.1)*	52,210 (3.0)**				
30~59세	55,836 (4.6)**	40,075 (2.4)*	91,602 (2.9)**				
60세 이상	30,090 (1.8)	8,626 (0.4)	69,569 (2.4)*				
가구원수(총)				49,947 (8.0)**	59,940 (7.8)**	0.198 (8.2)**	58,769 (7.7)**
전세더미					-40,195 (-2.6)*	-0.068 (-2.0)*	-34,399 (-2.1)*
월세더미					-12,785 (0.7)	0.018 (0.4)	-24,090 (-1.2)
가구주연령							1,568 (1.7)
전세더미							-3,681 (-2.0)
월세더미							3,109 (1.4)
월소득	0.501 (44.4)**	0.511 (30.4)**	0.491 (29.8)**	0.506 (45.7)**	0.502 (45.1)**	0.763 (44.9)**	4.499 (44.3)**
전세더미	-0.091 (-3.4)**	-0.081 (-2.6)**	-0.124 (-2.3)*	-0.093 (-3.5)**	-0.019 (-2.9)**	-0.079 (-2.4)*	-0.08 (-2.8)**
월세더미	-0.013 (-0.3)	-0.085 (-2.0)*	0.096 (1.4)	-0.018 (-0.5)	-0.013 (-0.4)	-0.139 (-3.6)**	-0.01 (-0.3)
종속변수평균	1,086,072	996,337	1,228,588	1,086,072	1,086,072	13,786	1,086,072
변이계수	34.5	33.6	35.0	34.6	34.6	2.1	34.6
Adj R ²	0.56	0.50	0.57	0.55	0.55	0.60	0.56
F 値	328.9	159.6	137.0	596.7	449.0	542.4	328.4

주: () 안의 값은 t값. *는 95% 유의수준에서 유의. **는 99% 유의수준에서 유의.

모형 1: $C = a_1 + a_2 D_2 + a_3 D_3 + b_1 N_1 + d_2 N_2 + b_3 N_3 + b_4 N_4 + b_5 N_5 + b_6 N_6 + c_1 Y + c_2 D_2 Y + c_3 D_3 Y$

모형 2: $C = a_1 + a_2 D_2 + a_3 D_3 + b_1 N + c_1 Y + c_2 D_2 Y + c_3 D_3 Y$

모형 3: $C = a_1 + a_2 D_2 + a_3 D_3 + b_1 N + b_2 D_2 N + b_3 D_3 N + c_1 Y + c_2 D_2 Y + c_3 D_3 Y$

모형 4: $\ln C = a_1 + a_2 D_2 + a_3 D_3 + b_1 \ln N + b_2 \ln D_2 N + b_3 \ln D_3 N + c_1 \ln Y + c_2 \ln D_2 Y + c_3 \ln D_3 Y$

모형 5: $C = a_1 + a_2 D_2 + a_3 D_3 + b_1 N_1 + b_2 D_2 N + b_3 D_3 N + c_1 Y + c_2 D_2 Y + c_3 D_3 Y + d_1 A + d_2 D_2 A + d_3 D_3 A$

여기에서 소비(C), 가구원수(N), 가구원연령 구분(5세 미만 N_1 , 6~13세 N_2 , 14~19세 N_3 , 20~29세 N_4 , 30~59세 N_5 , 60세 이상 N_6), 소득(Y), 가구주연령(A), 전세더미(D_2), 월세더미(D_3)

자료: 필자 계산

〈표 7〉 대우패널 근로자가구 소비합수 추정치(199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전체	가구주(40세미만)	가구주(40세이상)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절편	32.00 (3.5)**	51.67 (4.6)**	52.83 (2.9)**	33.72 (4.8)**	34.13 (4.4)**	1,934 (11.8)**	1.32 (0.1)
전세다미	-14.01 (-1.1)	-8.10 (-0.6)	-20.56 (-0.7)	-16.44 (-1.3)	-16.32 (-0.9)	-0.074 (-0.2)	3.93 (0.2)
월세다미	-3.48 (-0.2)	-13.94 (-0.5)	1.18 (0.04)	-1.78 (-0.1)	-12.49 (-0.4)	-0.113 (-0.2)	12.77 (0.3)
가구합수(구분)							
5세 이하	-2.84 (-1.4)	4.27 (1.8)	2.11 (0.3)				
6~13세	3.76 (1.6)	6.45 (2.4)*	5.92 (1.3)				
14~19세	13.46 (4.8)**	7.85 (0.9)	10.97 (2.9)**				
20~29세	2.44 (1.2)	-8.15 (-3.1)**	7.21 (2.1)*				
30~59세	14.87 (3.8)**	0.64 (0.1)	6.77 (0.8)				
60세 이상	7.74 (2.1)*	14.04 (3.0)**	-2.93 (-0.4)				
가구합수(총)				8.43 (5.7)**	8.33 (4.8)**	0.248 (5.0)**	7.62 (4.5)**
전세다미					-0.06 (-0.02)	0.066 (0.7)	0.02 (0.006)
월세다미					3.10 (0.4)	0.069 (0.3)	3.86 (0.5)
가구주연령							0.91 (4.9)**
전세다미							-0.51 (-1.2)
월세다미							-0.74 (-1.1)
월소득	0.252 (14.9)**	0.238 (10.4)**	0.247 (9.6)**	0.251 (14.8)**	0.251 (14.8)**	0.461 (15.1)**	0.242 (14.3)**
전세다미	0.040 (0.5)	0.044 (0.5)	0.032 (0.2)	0.042 (0.5)	0.042 (0.5)	-0.022 (-0.2)	0.055 (0.7)
월세다미	0.024 (0.2)	0.138 (0.7)	-0.068 (-0.3)	0.003 (0.02)	-0.009 (-0.06)	0.004 (0.03)	0.005 (0.04)
종속변수 평균	113.76	101.50	131.14	113.76	113.76	4.631	113.76
변이계수	40.62	37.79	41.40	40.62	41.04	8.20	40.62
Adj R ²	0.28	0.24	0.24	0.26	0.26	0.30	0.28
F 値	39.18	19.43	14.12	66.22	49.60	60.74	39.17

주: 〈표 6〉의 주 참조.

〈표 8〉 대우패널 자영업자 가구 소비함수 추정치(1994/95)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전체	가구주(40세 미만)	가구주(40세 이상)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절편	30.48 (2.5)*	43.26 (2.1)*	32.96 (2.0)*	31.86 (3.5)**	30.77 (3.1)**	2.302 (14.0)**	20.17 (1.2)
전세다미	-26.71 (-1.7)	-10.06 (-0.5)	-32.70 (-1.5)	-25.16 (-1.6)	-17.09 (-0.6)	-0.718 (-1.6)	-25.43 (-0.6)
월세다미	27.29 (1.1)	37.22 (0.9)	25.63 (0.8)	24.03 (0.9)	24.37 (0.7)	1.093 (-1.4)	-12.62 (-0.2)
가구원수(구분)							
5세 이하	1.90 (0.5)	8.36 (1.6)	-7.92 (-0.8)				
6~13세	13.27 (4.0)**	10.49 (2.0)*	18.08 (4.1)**				
14~19세	25.64 (6.7)**	37.36 (3.3)**	22.95 (5.2)**				
20~29세	4.25 (1.4)	-7.20 (-1.2)	5.85 (1.6)				
30~59세	16.23 (2.7)**	5.67 (0.6)	15.83 (1.9)				
60세 이상	17.80 (3.6)*	28.24 (3.1)**	13.39 (2.1)*				
가계소득(천원)				14.48 (7.2)**	14.76 (6.5)**	0.341 (5.9)**	14.87 (6.5)**
전세다미					-2.40 (-0.4)	0.019 (0.1)	-2.61 (-0.4)
월세다미					-0.06 (-0.008)	-0.035 (-0.2)	0.56 (0.1)
가구주연령							0.21 (0.8)
전세다미							0.23 (0.3)
월세다미							0.69 (0.7)
월소득	0.207 (11.1)**	0.216 (7.4)**	0.211 (8.5)**	0.193 (10.3)**	0.193 (10.3)**	0.382 (12.7)**	0.196 (10.2)**
전세다미	0.129 (1.5)	0.073 (0.6)	0.122 (0.9)	0.095 (1.1)	0.102 (1.1)	0.122 (1.4)	0.110 (1.2)
월세다미	-0.183 (-1.2)	-0.225 (-0.9)	-0.172 (-0.9)	-0.171 (-1.1)	0.171 (-1.1)	0.206 (-1.3)	-0.130 (-0.8)
종속변수평균	131.16	125.36	135.42	131.16	131.16	4.762	131.16
변이계수	42.25	42.99	41.59	42.91	42.97	8.48	42.99
Adj R ²	0.27	0.23	0.29	0.24	0.24	0.32	0.24
F值	24.52	9.35	15.97	39.17	29.32	42.39	21.50

주: 〈표 6〉의 주 참조.

參 考 文 獻

1. 동아일보, 1996. 10. 29.
2. 배준호,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비교분석”, 『근거과세 정착과 추계과세 합리화방안』 정영현 외, 한국조세연구원, 1996, pp. 19-44.
3. 成明宰, “우리 나라 都市家口の 階層別・年齡別 消費稅 負擔分布에 관한 연구”, 『財政金融研究』 제3권 제1호, 한국조세연구원, 1996, pp. 1-45.
4. 玄鎭權, 羅城麟, “所得稅와 附加價値稅의 衡平性 測定－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세부담 차이를 중심으로－”, 『租稅政策과 所得再分配』, 한국조세연구원, 1996, pp. 93-129. 이 논문은 “所得稅와 附加價値稅의 衡平性 測定－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세부담 차이를 중심으로－”, 『經濟學研究』 제42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1994의 수정, 보완판임.
5. 橘木俊詔・跡田直澄, “租稅・社會保障政策の再分配效果と水平的平等”, 『季刊現代經濟』 No. 59, 1984 秋, pp. 41-54.
6. King M.A., “An Index of Inequality: With Applications to Horizontal Equity and Social Mobility,” *Econometrica*, Vol. 51, 1983, pp. 99-116.

〈부표 1〉 도시가계조사(및 대우패널)의 자료 분포(1994) (단위: 가구)

소득계층	근로자가구		자영업자가구	
	가구수	%	가구수	%
제 1 분위	256(106)	8.9 (9.7)	173 (74)	12.3(10.4)
제 2 분위	318(113)	11.0(10.3)	111 (68)	7.9 (9.5)
제 3 분위	333(152)	11.5(13.9)	96 (29)	6.9 (4.1)
제 4 분위	320 (96)	11.1 (8.8)	110 (85)	7.9(11.9)
제 5 분위	312(132)	10.8(12.1)	117 (49)	8.4 (6.9)
제 6 분위	304 (96)	10.5 (8.8)	125 (85)	8.9(11.9)
제 7 분위	309(129)	10.7(11.8)	121 (52)	8.6 (7.3)
제 8 분위	296(108)	10.2 (9.9)	133 (73)	9.5(10.2)
제 9 분위	260 (81)	9.0 (7.4)	169(100)	12.1(14.0)
제 10분위	183 (82)	6.3 (7.5)	247(100)	17.6(14.0)
합 계	2,891(1,095)	100(100)	1,402(715)	100(100)

주: 괄호 안은 대우패널의 경우. 소득은 근로자가구에서는 조사치이고 자영업자가구에서는 추정치임.

자료: 필자 계산

〈부표 2〉 전체표본 중 소득세 등 납세자 (단위: 가구)

	도시가계조사			대우패널		
	전 체	근로자	자영업자	전 체	근로자	자영업자
전체표본	4,293	2,891	1,402	1,810	1,095	715
소득세 등 납세자	3,804	2,637	1,167	1,651	1,012	639
(%)	(88.6)	(91.2)	(83.2)	(91.2)	(92.4)	(89.4)

자료: 필자 계산

〈부표 3〉 도시가계조사(및 대우패널) 가구의 세부담률 (단위: 만원, %)

	근로자가구		자영업자가구	
	평 균	부담률 ¹⁾	평 균	부담률 ¹⁾
1. 소득	172.2(202.5)	—	217.7(234.6)	—
2. 소비	111.9(115.8)	—	122.9(134.2)	—
3. 소득세 등	5.4(4.7)	2.6(2.0)	2.2(4.2)	1.1(1.3)
4. 사회보장부담금	3.9(4.3)	2.2(2.4)	2.1(1.7)	1.3(0.9)
5. 부가가치세	3.9(4.0)	2.3(2.2)	4.4(4.8)	2.3(2.4)
6. 소비세	6.9(7.1)	4.0(3.7)	8.1(8.5)	3.9(4.1)
7. 소득세 등 + 사회보장 부담금	9.4(8.1)	4.8(4.4)	4.3(4.6)	2.4(2.2)
8. 소득세 등 + 사회보장 부담금 + 부가가치세	13.3(12.1)	7.2(6.5)	8.7(9.3)	4.6(4.6)
9. 소득세 등 + 사회보장 부담금 + 소비세	16.3(15.2)	8.9(8.1)	12.4(13.1)	6.3(6.3)

주: 괄호안은 대우패널의 경우. 소득세 등의 면세자를 제외한 표본에서 계산한 값임.

1) 부담률은 대 소득 비율임.

자료: 필자 계산